‘키드’에서 ‘파힘’까지 끝없는 감동을 채우다

광주극장, ‘그 시절 감동을 다시한번’ 명작 초대전

‘키드’ 뉴욕 첫 상영 100년만에 리마스터링 버전 개봉
‘파힘’ 국경·인종·세대 초월 잔잔한 감동 스크린으로

국내 유일 단관극장 광주극장에서 역사상 최고의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을 다룬 첫 장편영화부터 체스 챔피언이 돼야하는 천재 소녀의 도전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상영된다.

광주극장에서 21일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요요현상’을 비롯해 찰리 채플린 ‘키드’, ‘파힘’ 등 각각 개봉된다.

상영 중인 영화 ‘요요현상’은 어린 시절부터 취미도 요요, 특기도 요요인 다섯 명의 ‘요요소년’들이 후반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며 겪는 ‘취미’와 ‘일’ 사이의 고민과 해법을 담은 청춘 공감 다큐멘터리다.

제작 기간 8년을 통해 다섯 사람이 마주친 현실과 꿈을 다룬 이 작품은 인물들의 제각기 다른 진로 선택을 통해 ‘취미’와 ‘일’에 대한 5인 5색의 해법을 보여준다.

또 화려한 요요 퍼포먼스와 어린 시절 모습이 담긴 홈비디오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요요의 역사를 집대성한 아카이브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홍콩영화 ‘화양연화’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 같은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첸 부인’(장만옥)과 ‘차우’(양조위)는 각자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 기혼자들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다뤘다.

20년 전 개봉했던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스크린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1일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천재 아티스트이자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1889-1977)의 첫 장편 영화 ‘키드’가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1921년 1월21일 뉴욕에서 첫 상영된 후 100년 만에 재개봉하는 것이라 의미를 더 한다.

떠돌이 ‘찰리’가 가족에게 버려진 어린아이 ‘존’의 보호자가 되면서 겪는 우여곡절과 부모의 심정으로 정성스레 아이를 키우며 쌓아가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테이블 매너를 연습하는 장면과 부랑자가 꾸는 고결한 꿈 신(Scene)이 인상적이다. ‘키드’는 1921년 개봉 당시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비평가들에게도 호평받으며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

같은날 개봉하는 영화 ‘파임’은 방글라데시 체스 신동의 유쾌하고 따뜻한 감동 실화를 다뤘다.

‘파힘’은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체스 챔피언이 돼야하는 천재 소년 파힘이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체스 경기의 쫄깃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파힘과 체스 교실 친구들의 무공해 순수함과 찰떡 호흡을 통해 따뜻하고 유쾌함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다.

자국의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프랑스로 망명한 체스 신동 파힘이 체스 선생님 실뱅을 만나 국경과 인종은 물론, 세대를 뛰어 넘은 우정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사진 위로 부터 ‘키드’ ‘파힘’ ‘요요현상’ 스틸 컷. 〈광주극장 제공〉

상영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카페(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다이 기자

광주 시립소년합창단·시립국악관현악 지휘자 위촉

박주현·한상일씨 2년간 ‘지휘봉’

광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박주현(40)씨와 시립국악관현악단에 한상일(66)씨가 2년 동안 지휘봉을 잡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이들 지휘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

신임 박 지휘자는 미국 유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아리조나대학교 대학원에서 합창지휘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하이랜드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를 지냈으며, 아리조나대학교에서는 음악이론과 서양음악사 강사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화성필코러스 지휘자,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전임지휘자로서 활동했다.

박 지휘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하면서 공연계획 수립, 공연제작 등 단체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박 지휘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음악이 주는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 단원들에게는 음악교육을 하는 친근한 선생님으로, 시민들에게는 아카데믹한 음악교육을 예술로 승화해 다양한 합창음악을 무대에서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상일 지휘자는 2019년 1월18일부터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어왔다.

광주시는 한상일 지휘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문인사들로부터 재위촉과 관련해 재임기간 공연실적, 단체기여도 등의 평가 및 자문을 받아 만장일치 의견으로 재위촉했다. 이에 따라 한 지휘자는 앞으로 2년간 시립국악관현악단을 다시 이끌게 됐다.

한 지휘자는 “국악에 대한 친숙감과 가치성 구현을 위해 ‘국악나들이’, ‘구연동화극’ 등의 작품을 제작하고 임기 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한 아시아오케스트라를 통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국악상설 공연 활성화로 시민 및 외지 관광객에게 광주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강사’ 공모

18일까지 총 3개 분야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교육을 함께 이끌어갈 ‘미디어교육 강사’를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선발된 미디어교육 강사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기동안 진행되는 학교미디어교육,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상설미디어교육(영상, 라디오, 사진, 드론, 크리에이터 등), TV·라디오 등을 체험하는 미디어체험 등 광주센터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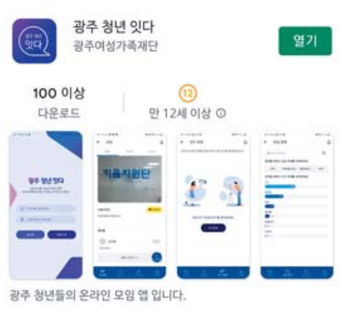
모집대상은 교육 전반을 이끌어가는 ‘일반강사’와 이를 지원하는 ‘보조강사’, 미디어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체험강사’까지 총 3개 분야이며,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일정은 20일 1차 합격자 발표, 27일 온라인 면접 및 강의 시연을 거쳐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보조강사의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미디어 관련 분야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만 15-34세의 청년지원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kcmf.or.kr/comc/gwangju)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gjc@kcmf.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분야별로 별도의 강의제안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청자사업팀(062-650-0333)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다이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개발·운영중인 광주청년 소통·교류 공공앱 ‘광주청년잇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청년잇다’ 앱 활동 동아리 지원

18일·22일 온라인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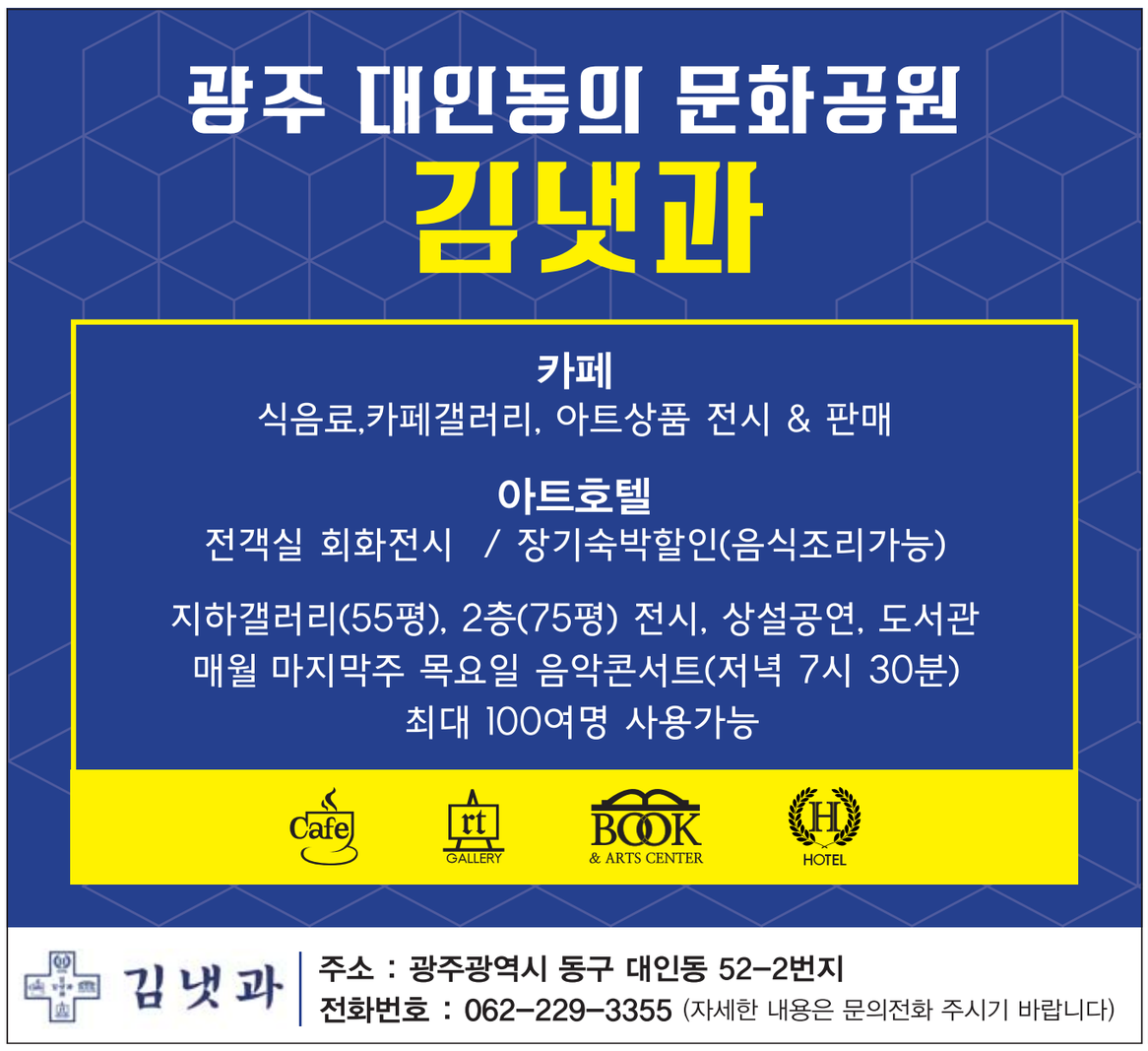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공앱 ‘광주청년잇다’를 개발하고 현재 동아리 56개팀(회원 259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활동 동아리 간 네트워킹과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18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18일 오후 6시에는 광주여성가족재단 2030 청년동아리 중 ‘생애주기별 경제 지침서’를 발간하고 7천860만원의 텀블벅 후원을 달성한 ‘비코노미’의 이다겸 대표가 청년동아리 활동과 출판, 텀블벅 후원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2일 오전 10시부터는 앱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특성을 반영해 ‘앱, SNS에 필요한 글쓰기’라는 주제로 지역 온라인마케팅 업체 ‘아이엠위즈’ 박재이 대표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해당 시간에는 준비된 교육과 함께 동아리 별 활동 내용 등을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도 진행예정이다.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청년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만남과 네트워킹의 장으로 활용할 ‘광주청년잇다’ 앱이 앞으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CMYK